지리산 대화엄사, 120억원 경제 가치 창출

동국대 WISE캠 불문연 등 분석
홍매화 사진대회에 25만명 몰려
체류인구, 등록인구보다 18배↑
카페 2배 늘어…지역 경제 견인
덕문스님 "지역 상생 도량될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엄사 명물 행사 중 하나인 모기장 영화음악회. 올해에만 13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대화엄사(주지 덕문스님)가 올해 구례 지역에 12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엄사는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위원장 성기홍), 광주 BBS불교방송(사장 최갑열),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과 함께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의 미디어 노출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언론사 뉴스(공중파·종편) △TV문화프로그램(공중파·종편)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구글) △유튜브 △파워 블로그에 노출된 지리산 대화엄사의 키워드와 이미지가 조사됐다. 노출효과에 대해서는 'CPT(Cost Per Mille) 공식'으로 광고 노출효과 분석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정량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 노출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19억955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리산 대화엄사의 대표브랜드인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가 72억6000만원이었으며, 모기장영화음악회 13억원, 화엄문화제 10억4700만원, 요가대회 3억3000만원, 기타 노출 12억4000만으로 조사됐다.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은 "구례군 읍내 중국집이 2021년 11개에서 2024년 15개로 증가됐고, 카페는 2021년 50개에서 2024년 111개로 2배 증가했다"면서 "카페가 2배 증가한 것은 구례의 생활인구 증가에 화엄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3월에 진행된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기간 동안 화엄사를 방문한 방문객이 25만명에 달한다. 이를 통해 화엄사가 구례군 생활인구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홍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은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 미디어 노출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는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세다. 실제, 2021년 37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23년 82억원, 2024년 12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지난 8월 통계청과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구례군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전국 최고가 됐다. 이는 화엄사 브랜드 노출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화엄사의 경제적 효과에 지자체도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엄사가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구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엄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례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주지 취임 당시 지역과 함께하는 화엄사, 지역과 상생하는 화엄사, 지역민에게 사랑 받는 화엄사가 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아직도 모자라지만 그 약속의 결실 작게나마 지역에 회향을 할 수 있어 기쁘다. 지역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화엄사를 사랑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큰스님 유지 계승"

12월 11일 통도사 설법전서
대종사 유영집 '무영수' 봉정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총림 통도사는 12월 11일 경내 설법전에서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역임한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열반 21주기를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12월 11일 경내 설법전에서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월하 대종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유영집 〈무영수〉 봉정식과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추모다례재는 대중 삼배와 추모입정, 생전 법문 청취에 이어 종사영반, 문도를 대표해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헌향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의 헌다로 이어졌다. 문도대표 성파 대종사는 인사말에서 "스님의 열반 21주기를 맞아 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과 불자님들이 참석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큰스님께서는 일생 동안 불교정화운동에 헌신하고 수행에 진력함으로써 후학들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후학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이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 스님)은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탄신 110주기를 맞아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이 담긴 유영집 〈무영수(無影樹)〉 봉정식을 진행했다. 〈무영수〉에는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수행, 업적을 엿볼 수 있는 300여 점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학술·문화 부문에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봉사·실천 부문에 이정숙 인성기공 부사장, 포교원력상에는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에게 각각 상금 1000만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현문 스님은 이날 해동고 이승환 학생 등 10명의 학생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대화엄사, 삼신불 개금불사 점안

12월7일 대웅전서 불상 점안
'2024년 화엄법회 회향식'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12월 7일 경내 대웅전에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국보 336호) 개금불사 점안법회 및 2024년 화엄법회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지난 2021년 6월 국보로 승격되며 복장불사를 봉행했다. 그러나 불상에 박락(불상 개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2024년 8월 보존처리 및 개금불사를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해 6 차례에 걸쳐 정제철을 진행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 개금을 진행해 이날 점안하게 됐다.

법회에는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주지 덕문 스님, 전 주지 종걸 스님, 종삼 스님, 영관 스님 등 화엄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한 장길선 신도회장, 이길용 구례군 부군수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각 말사 신도 등 5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회주 종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개금불사 점안 회향식의 많은 의식에 한량없는 많은 법문이 들어있다"면서 "화엄사는 대웅전 건물이 보물인데, 국보로 지정된 부처님을 봉안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화엄사는 수행정진을 통해 많은 신도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전란으로 전소된 화엄도량을 중창하고자 발심하신 벽암 각성 스님의 대원력으로 1635년에 조성됐으나 400년의 세월의 무게로 성상이 퇴락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금불사를 진행했다"며 "화엄사에 세 분 부처님의 장엄함을 갖추어 전란으로 시달리는 시방세계에 평화의 미소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통茶 한자리에…울산 차문화 한마당

BBS 울산 불교방송 주최
12월 5일 울산 KBS홀서



올해로 15회를 맞은 '울산 차문화 한마당'이 12월 5일 울산 KBS홀에서 개최됐다.〈사진〉 울산 차문화 한마당은 지역 차문화를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지역의 다도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BBS 울산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BBS 울산 불교방송 무용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차인단체 소개, 인사, 격려사, 축사, 감사패 수여, 다례 시연, 축하공연, 사홍서원, 찻자리 무대, 회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김정희 석정다례원 부회장, 울산불교종단협합회회장 혜원 스님은 권정련 정련다례원장, 이진용 울산 BBS 불교방송 사장은 홍국희 울산차인연합회 9대 회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2부 다례시연에는 연한다회의 어린이 싱잉볼 차명상, 태화문인 차인연합회와 백양사 선다회의 매월당 고려점다시연이 진행됐다. 축하공연에는 문화공연주 영덕 기원정사 자명 스님과 불자 국악가수 권미희 공연이 이어졌다.

이진용 BBS 울산불교방송 사장은 "이 자리는 차의 향기와 맛뿐 아니라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격려사에서 "차밭에 대한 기록이 통도사 사적기에 남아있는 점을 미뤄볼 때 울산과 양산, 경주의 차문화는 통도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BBS 울산불교방송이 해마다 '울산 차문화 한마당'을 열어줘 통도사와 울산의 과거, 현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2025년 교사 연수

1월 7~9일, 13일에 진행
내면성찰 목적 실참 강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이 교사들을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2025년 1월 7일부터 9일, 13일까지 총 4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괜찮지 않아도 돼!'라는 주제로 열린다. 교사 직무연수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내면 성찰을 통해 해결하고, 학생들과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 이론 전달이 아닌 교사의 내적 성찰과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고정관념 내려놓기' △스스로를 수용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는 '괜찮지 않아도 돼' △삶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는 '아름다운 고백' 등이 준비됐다. 또한 강사진으로는 교육학, 심리학, 생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수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면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숙식제공 포함이다. 055-643-0643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붓다·복지TV전북방송 MOU 체결

12월 9일 전북방송 회의실
공익 · 복지 사업 확대 목표



사단법인 붓다와 복지티비 전북방송이 공익 복지사업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와 복지티비 전북방송(대표이사 사장 김태권)은 12월 9일 복지티비 전북방송 회의실에서 공익·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는 △신규 복지 사업 발굴 및 공동 프로젝트 기획·실행에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상생 네트워크 강화로 나눔·봉사·소통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종 불교 낙화법 조명 학술 세미나

12월 6일 세종 영평사서



세종시 불교 낙화법 보존회(이사장 환성 스님)은 12월 6일 세종 영평사 삼명선원에서 '수구즉득다라니와 낙화'를 주제로 '세종 불교 낙화법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 세종시 불교 낙화법 보존회 회장 원행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통도사 덕문 스님을 비롯해 세종시 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오영철 세종시 불교신행단체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순천불교聯 송년법회…"내년에도 자비행"

장학금 전달, 신행상 수여 등



순천불교연합회(회장 범일 스님, 금룡사 주지)가 12월 8일 순천 마리나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불기 2568(2024)년 순천불교연합회 송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순천불교연합회장 범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을사년 새해에도 순천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신도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하루빨리 온 세상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발원했다.

이날 순천불교연합회는 순천대학교 불교동아리 '연'의 박한빈 학생 외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5년을 이끌 순천불교 신도연합회에는 회장 정승호(금룡사 신도회장)를 비롯한 신임 임원 14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불교신도회, 2024년 송년의 밤

12월 6일 울산 문수컨벤션서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영수)는 12월 6일 울산 문수컨벤션 콘서트홀에서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송년의 밤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불교와 신도회 발전에 기여한 불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와 불심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돼,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장으로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